

다들 드디어 노니방을

2016. 4호
www.womenfund.or.kr

기획

여성주의, 문화로 소통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20대 국회 일터나눔 1호 박광온의원실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김연순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20대 초반 '여성학' 교양과목을 통해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혼 후 임신, 출산, 육아를 거치며 여성운동이 내 삶 전체로 다가왔다. 마침내 여성민우회를 만나며 드디어 삶이 풍요로워졌다. 여성민우회는 생활협동조합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평소에 유기농산물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나 먹는 것이라고 여겼고 대충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리 유별나게구나 생각하던 터였다.

그러다 생활협동조합운동의 출발과 취지에 대한 교육을 접하게 되었다. 생활협동조합에서 구매한 유기농산물을 먹는 것이 그저 가족의 건강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벌레를 죽이기 위해 점점 더 강해지는 독성이 강한 농약과 화학비료로 짓는 농사의 고리를 끊어내는 방법이었다. 유기물이 풍부한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작물을 밥상에 올리는 일, 유기농업은 '생명의 농법'이며 그야말로 생태계가 순환하는 농법인 것이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 그것이 사람이건 벌레건, 생명을 살리는 행위는 내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살림'은 그렇게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방향키가 되었다. 생명을 낳고 길러본 나는 환경오염이나 수시로 발생하는 식품 사고에 민감해졌고 자연 환경을 생태적으로 돌보고 유지하는 데 더 깊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2012년 한국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작은 협동조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협동조합운동 27년째, 나는 협동을 통해 필요를 해결하는데 관심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있다. 협동조합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이 가능한 삶을 꿈꾸는 여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경제적 자립은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여성의 자립과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협동조합이 지닌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자본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의사결정도 느린 협동조합, 그러나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기업에 비해 소득 재분배가 쉽다. 주식 수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1인 1표다. 출자수와 관계없이 조합원 누구에게나 발언권이 주어진다.

조직의 주인이 조합원이고 조합원의 뜻에 따라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는 공동체적 가치의 힘을 믿는다.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도우며, 삶의 필요를 협동으로 해결해간다. '돈'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새로운 경제, 이제 여성들이 그 세상을 이루어가면 좋겠다. **W**



말들에게 희망을 2016. 4호

전국에서 모인 여성공익활동가들, 짧은 여행 긴 호흡 비전여행을 떠나다

후원

농협 369-17-005283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트위터

twitter.com/womenfund

해피로그

happylog.naver.com/womenfund.do

Contents

03 사립문 | 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경제

김연순 한국여성재단 운영위원, 행복중심협동조합지원센터 이사장

04 기획 | 여성주의, 문화로 소통하다

내가 쓰는 이유, 조우리 작가가 사는 법

농촌여성들의 페미니즘 토크파티

나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 이현주 감독의 <연애담> 커밍 슌

10 이슈와 현장 | <불꽃페미액션> 용운신님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빛은 강남역 사건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영숙살림이상 수상자 윤정주님의 시청자미디어운동사

20대 국회 일터나눔 1호, 박광온의원실

16 여성단체와 함께 댄다 | 장애여성네트워크+활짝미래연대

짧은 여행 긴 호흡 파워업, 워밍업! 제주를 가다

18 소식

재단활동

2016년 5~6월 기부자명단

2016년 1~6월 수입과 지출

23 한국여성재단 해피빈 모금함 말들이 웃는 사회

여성주의, 문화로 소통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건네고 있나요?
여성들은 또 어떻게 세상과 소통하나요?
여성의 이야기를 말로, 혹은 문학으로,
스크린으로 전하는 여성들을 소개합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소통방법을
2016년 여성재단 지원사업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내가 쓰는 이유, 조우리 작가가 사는 법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우리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여성작가로서의 의식은 부끄럽게도 최근에서야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계기 중 하나는 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지원해보라고 권유 받은 일입니다. 저는 제가 매우 개인적인 소설을 쓴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의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 제 마음이 자꾸만 쓰이는 것들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추천 받고 나서야 비로소 여성작가로서의 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글을 쓰고 있는 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제 소설을 돌아보니 제가 여성으로서의 삶을 써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식하고 난 뒤에는 현실을 사는 여성들의 모습 역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작가라는 말 앞에 성별 수식이 필요하지 않다고 막연히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이 여성작가임을 늘 주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작가로서 소설을 쓰고, 소설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저의 일상에서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소설의 소재나 주제보다는 소설 그 자체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비밀상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일상의 대부분을 할애해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출간예정인 소설집은 나의 5년간의 흔적

10편의 단편 소설을 한 권의 책에 담으려고 합니다. 저는 문학이 순간의 이름을 찾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설이 독자들에게 무심코 지나쳤지만 도무지 잊히지 않는 순간, 잊을 수 없는 순간, 잊으려고 애쓰는 순간들과 그 순간에 느낀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는 소설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온 소설들은 스스로의 순간들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소설의 인물들은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애매한 표정을 짓습니다. 말없이 사라진 룸메이트를 텔레비전 속에서 발견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 타인의 사소한 친절에 의심을 품게 되는 사람, 사과를 강요받는 사람과 용서를 강요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아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업 소설가로서 작품을 발표하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발표한 소설을 쓰던 당시와 지금의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이 생겼다고 느낍니다. 이 기간을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

실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표한 소설들을 어디까지 다듬고 고칠 것인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5년의 거리감이 이렇게나 많은 고민을 주는데, 더 멀어지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까

경제적인 지원이 있다는 것은 작가에게 디딤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여성재단의 지원 덕분에 마음껏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여성작가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재단'이라는 이름이 여성작가로서 고민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어주었습니다. 오래도록 소설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또한 글을 가까이 두고 고민하며 사는 여성으로, 여성을 위한 글쓰기에 대해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문단의 여성작가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W

글 조우리작가

농촌여성들의 페미니즘 토크파티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으로 귀촌한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문화기획달>은 올해부터 페미니즘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른바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통 치지 말자"이다. 귀농귀촌이라는 부편 꿈을 안고 농촌으로 온 여성들은 농사일, 직장 일,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에 쫓기며 생경한 시골살이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 와중에 주민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있는 가부장적인 문화와 성역할의 명확한 구분, 일상적인 술자리와 친밀함속에 담긴 음담패설은 농촌이 의례 그거려니 하며 참고 견디는 귀농귀촌한 여성들에게 통과의례처럼 받아들여졌다.



말문이 트인 '뺏다 수다방'

변화의 물꼬는 문화기획달에서 발행하는 <지글스>(지리산에서 글 쓰는 여자들)라는 계간지의 대담 코너, "뺏다 수다방"(이하, '수다방')을 통해서였다. 작년 가을, '그 XX라는 주제로 수다방이 열렸다. 술자리에서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고 여성을 희롱하는 사람들과 동조하는 사람들,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여성을 보고 남자 꼬시려는 수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도시에서라면 당연히 성추행을 한 한 남성에게 대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붓물 터지듯 쏟아졌다.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지'라며 원만한 관계를 위해 통치고 지나쳤던 일상의 불쾌함, 불안, 고통에 대해 여성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다방에 모였던 여성들은 농촌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것이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의 시발점이었다.

토크파티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지난 4월, 캠페인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여자들의 토크파티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이하 '토크파티')가 열렸다. 더 많은 농촌 여성들의 이야기와 사례를 들어보기 위해서였다. 남편과 같이 농사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이 쉬는 동안 밥을 차리고 아이를 챙겨야 했던 여성, 또 한 분은 토크파티 시간에 맞춰 나오려고 했는데 남편의 밥상을 차려야 해서 늦었다고 했다. 또한 작목반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갈 때는 포르노물을 틀기도 했다고 한다. 상대에 대한 배려나 예의없음, 불평등한 부부 관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마을 회관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면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마을 회관은 아예 들어가는 문부터 다르다. 남성들의 출입문은 방으로 직접 연결되지만, 여성들의 출입문은 부엌으로 향한다.

여성들은 밥상을 차리고 남성들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앉아서 밥상을 받으며 술 가져와라, 안주 가져와라, 주문한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조차 새파랗게 어린 남자들의 시중을 들어야했다. 족구대회, 면민의 날, 고로쇠 축제 등 마을에서 열리는 큰 축제에

는 마을부녀회가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음식, 서빙, 설거지를 도맡는다. 비혼 여성들은 한밤중에 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여 성추행한 사례, 섹스파트너 제안을 받거나 술자리에서 가슴을 더듬는 성폭력 사례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여자사람이 농촌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존전략

폭풍같은 토크파티 이후, 문화기획달은 여성학자, 한국성폭력상담소로부터 농촌으로 이주한 1인 여성가구의 지원정책, 농촌의 가부장성을 넘어선 남성과의 새로운 관계 맺기, 성폭력사건의 대처방안,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지문을 받았다.

마을도 점차 변화의 움직임이 생겼다. 마을행사에 점차 여성들의 참여가 줄어들자 족구대회에서는 최초로 남성을 대상으로 음식준비와 설거지를 할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기도 했다. 마을의 제를 다루는 포럼의 운영위원회에 4~50대 남성 10명으로만 구성된 것에 대해 여성 주민의 문제제기로 여성들은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마을의 대소사를 함께 하며 서로 돕고 어울릴수록 더울수록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의 맨바닥에는 여성의 고단한 일과 노동, 삶이 묻혀 있었다. 농촌에서 여성들의 자존감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의 다리가 되어 함께 걸어 나가기로 고대해본다. W

글 명심(문화기획달)



나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 이현주 감독의 <연애담> 커밍 슨

이현주 감독의 장편영화 <연애담>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이어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도 상영되어 관객들을 만났다. 지난 6월 어슬렁정거장에 만난 이감독은 여성재단 지원 덕분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연애담>은 막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이야기로 이현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막연히 영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기억했지만 나중의 기억을 더듬어보니 그의 고등학교 학생기록부에 적힌 장래희망이 영화감독이었다.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한 영화공부와 첫 작품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그가 영화를 하는 이유가 됐다. 그래서 단국대 대학원 연극영화학과를 거쳐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연출 전공중이다. 10년 만에 연출한 첫 장편영화가 영화제에서 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하반기 개봉도 준비하게 되었다.

아카데미 과정으로 제작한 <연애담>은 시나리오와 연출, 편집의 과정을 이 감독이 혼자 해냈다. "진행하다보면 많은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 후반작업에 예산이 부족했어요. 약간의 기대를 갖고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다행히 지원금을 받게 되어서 무사히 작품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품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에 "등골이 오싹해지고 사람들이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감독이 말하는 <연애담>이야기

"작고 소박한 영화다. 화면도 느리고 옛날 한국영화같다" 영화를 소개해달라는 말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여성감독과 여배우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섬세함이 보였다"고 말씀해주신 분, 다음 생애 여자로 태어나 이런 영화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는 분도 계셨어요."

"두 여성이 등장하는 소재로 영화 <아가씨>와도 비교가 됐어요. <아가씨>의 원작이 소설이라면 <연애담>은 누군가의 일기장을 가지고 만든 것 같다고 해요. 누구나 다 해봤던 경험담 같은 느낌. 일기장에 있는 얘기들은 누구나 다 해봤음직한 경험담이 담겨있게 마련이니까요. 다시금 그때가 생각나 덮고 있는 이불을 발로 차버리게 되는 영화라고 할까요."

주인공은 여성 두 명이지만 남성 관객이 '나도 그랬었을 수 있겠다'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 감독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화는 보는 내내 영화 속에 몰입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영화는

계속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연애담>은 후자가 가까워요." 그의 영화를 보면서 관객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고 하니 생각한 부분이 잘 전달된 거 같아 만족스럽다고 했다. 게다가 감독을 포함, 프로듀서, 미술, 의상 등 많은 여성영화인들이 함께 만든 영화라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

감독은 상영할 권리, 관객은 볼 권리

"영화현장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영화제에서 일하는 스태프들도 여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성감독에게는 기회가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다양성영화라고 분류되는 영화들 중에는 개봉관이 수적으로 적거나 상영시간이 아침저녁으로 한정적이어서 관객을 만나기가 열악하다. 게다가 독립영화 상영관은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다.

흥행력을 갖춘 천만 영화, 관객을 만나지도 못하는 영화, 둘 다 감독에게 안타깝다. "감독은 우선 선택을 받아야하는 입장니까 투자자의 입장을 듣지 않을 수 없어요. 여성감독들은 첫 영화를 어렵게 성공을 해도 차기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에요. 워낙 영화제작수가 적으니 어렵게 만들어진 영화에 대한 책임감도 큰 편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행운아가 맞아요."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도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법. 이 감독은 다양한 방법으로 관객과 소통하기를 바랐다.

"감독은 크건 작건 크기에 상관없이 영화관에서 상영이 되고 관객들의 반응에 귀 기울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관객들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지원받은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은 여성예술인뿐만 아니라 풀뿌리 활동가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여성예술인들이 만든 작품을 모아 작은 영화제를 연다거나 풀뿌리활동가들이 있는 지역에서 영화상영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소수의 관객만이 영화제를 통해서 <연애담>을 관람했지만 이미 입소문을 통해 많은 이들은 그의 작품을 기다리는 중이다. 하반기 개봉을 기다리며 커밍 슨! **W**

글 백진영(기획홍보팀)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빛은 강남역 사건

지난 5월 17일, 강남역 근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사건. 이 사건의 원인을 조현병 환자로 치부한 경찰과 달리 시민 사회와 여성들은 대한민국 전반에 만연한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여성혐오임을 지적했다. 용운신님 역시 밤길 걷기를 제안하며 20대 여성들이 겪는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같은 20대 여성이기도하고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된 후 처음 들었던 생각은 분노였어요. 그 다음은 '나는 운 좋게도 살아있지만 나 역시 그 장소에 있었다면 똑같이 피해를 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전철역을 찾아갔고 추모의 포스트잇으로 둘러싸인 강남역과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녀온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 뭐라도 하자,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았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운동권 친구들과의 만남

함께 공감하고 주도했던 친구들은 <불꽃페미액션>이라는 팀 친구들이예요. 원래 이름은 <불꽃여자농구팀>이었어요. 특히 농구를 좋아해서 일요일마다 만나서 운동을 하곤 했어요. 농구하는 여성들을 특이하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일단 운동을 시작하면 주변 시선을 신경 쓸 틈도 없이 몰두하곤 해요.

아직 학생인 친구,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들, 저는 알바노조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여성주의에 대한 궁금함도 많고요. 이분들과 함께 주도한 활동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가 아닌 개인의 정신병으로 몰아간 경찰에 항의하는 것과 여성들에게 밤거리를 되찾아주는 밤길 걷기 두 가지입니다. 여론에 집중되다 보니 덕분에 신상이 털렸습니다.

밤길 걷기, 달빛 시위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24일 저녁, 논현역에서 강남역까지 걷기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분들, 친구의 친구들이 함께 참여했어요. 첫 번째는 70여명, 두 번째는 100여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밤길 걷기는 잘못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여성들이 조심해야 하는가를 묻고 오히려 잘못된 것은 여성혐오이고 여성들의 안전한 밤길을 되찾기 위한 것입니다.

밤길 걷기 후, 소감나누기를 하면서 행사는 잘 마쳤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밤길 걷기 당시 술 취한 아저씨들이 길을 막고 뭐하는 거냐며 시비를 걸어오기도 했어요.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함께 대응을 해주어서 다행히도 큰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주변 남성들은 지지도 해주고 밤길걷기에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빛은 참극

이 활동을 통해 뭔가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사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간 20대부터 여성들은 성폭력에 많이 노출됩니다. 그런데 대학내에서 여성학이나 여성주의 활동은 거의 없습

니다. 성폭력을 당해야만 그 실상을 알게 될 정도로 예방차원의 활동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아픔을 겪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민단체에서 일하며 나름대로 성평등한 곳에서 활동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기본적으로 여성주의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치든 어떤 분야와 상관 없이 여성주의를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없는 곳에서는 여성들이 활동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20대가 주축이 되어 맘껏 놀고 말하고 싶다

강남역 사건에 대해 함께 문제제기 했던 20대 여성들을 주축으로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전 여성주의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아주 짧다면 짧아요. 관심을 갖고 책도 읽고 있지만 20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활동하는 단체가 없더라고요.

지난 6월, 시청광장에서 열린 쿼어퍼레이드에서 저희 팀은 <천하제일 거털대회>를 열었어요. '여성들은 거털이 안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깡이야 된다, 거털있는 여성은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편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곁에 열대우림' 등 피켓을 만들어서 쿼어퍼레이드 오신 분들과 인증샷을 찍으며 놀았습니다. 우리 안의 선입견과 편견을 바꾸는 문화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7월에 워크숍을 가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다양한 활동들을 고민하면서 올 하반기를 보내게 될 거 같네요.

강남역 사건으로 뜨겁게 봄날을 보낸 용운신님과 <불꽃페미액션>, 다시 뜨거운 여름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중이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소통하고 있는 2~30대 여성들의 활동 역시 응원을 보낸다. **W**

글 백진영(기획홍보팀)

박영숙살림이상 수상자 윤정주님의 시청자미디어운동사



지난 5월 27일, 제2회 박영숙 살림이상 시상식이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에서 개최되었다. 살림이상은 한국여성재단 초대이사장이셨던 故박영숙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가는 여성활동가들을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성평등(윤정주), 평화(정경란, 평화여성회), 생명(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분야로 선정한다. 성평등 분야를 수상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의 윤정주 소장을 만났다.



수상소감부터 들려주신다면

많은 선후배 활동가들이 있는데 제가 이상을 받아도 되나 부끄럽기도 했어요. 반면 여성계 선배님들이 주는 상이니만큼 의미있고 값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많이 기뻐했습니다. 선후배가 함께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든든하게 봐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디어운동본부 초창기부터 활동하셨다고 들었다. 활동을 계속 이어온 동력이 있다면

올해 활동 18년차입니다. 98년에 미디어운동본부가 만들어지고 저는 99년부터 간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미디어운동본부는 성평등한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과 영상 제작, 미디어교육을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자는 제안에 흔쾌히 결정 내린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우회는 수평적이고 일방적이지 않아요. 의논하고 합의하고 서로 양보하고 밀어줘요. 일은 힘들지만 재밌고 이러한 환경이 뒷받침해주었어요.

곧 미디어운동본부가 20년이 된다. 그동안 미디어운동의 성과를 소개해 주신다면

한동안 모든 여자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미스코리아로 만들었던 미스코리아선발대회의 공중파방송 폐지운동입니다. 많은 여성단체들과 함께 했었지요. 두 번째는 최초로 <최악의 프로그램>을 선정한 일이에요. 어린이와 시민들이 직접 뽑았어요. 그리고 어린이들은 해당 프로그램 피디에게 직접 '이런 폭력적인 프로그램을 보고 싶지 않아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세요'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어요. 이 어린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이라는 연극을 덕수초등학교 강단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대본을 쓰고 아이들과 함께 배역을 정해서 연습했어요.

또 하나는 편성변경을 요구한 일입니다. 당시 주 2회 방송이었던 SBS 모 연예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의 비디오 몰카 사건을 다루면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남성의 증언을 30분 이상 방송하고 당사자여성은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도마 위에 올려

져 윤리적인 판단과 도덕적인 잣대로 몰아갔어요. 저희가 득달같이 달려갔죠. 선정적인 방송을 중단하고 주 1회로 편성을 요구했어요. 방송사는 바로 사과하고 편성을 주 1회로 변경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지요. 최근 성형을 조장하는 케이블프로그램 폐지운동도 했었고요. 무엇보다 시청자의 제대로 된 알권리찾기와 미디어교육이 주요 활동입니다.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직업병 같은 게 생긴 않았나요?

비평을 위해 막장드라마, 선정적인 예능프로그램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웃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일을 10년 정도 하다보면 정말 힐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사회를 위해 미디어가 변화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왜곡된 여성이 등장하는 드라마, 전문가 인터뷰는 남성이 하고 일반인 인터뷰는 여성이 합니다. 남녀 출연 비율 등도 고려되어야 하고 광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담은 프로그램 제작 환경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인들에게 인권의식과 성평등 교육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푸른미디어상>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는데요, 곳곳하게 미디어의 공공성과 의미를 잘 살린 방송에 주는 상입니다. 전에 노회경 작가가 상을 수상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상을 주는 곳이 있어서 만들 힘이 생긴다. 마음 따뜻해진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이 상의 의미를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미디어운동이 성평등 사회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시간여 인터뷰 내내 절감하고 공감했다. 내 주변에 가깝게 있지만 만만치 않다는 것도. 하지만 오늘 저녁, 리모콘을 누르는 그 순간 시청자의 제대로 볼 권리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W**

글 백진영(기획홍보팀)

20대 국회 일터나눔 1호, 박광온의원실

한국여성재단의 1%나눔 중 직장에서 동료끼리 참여하는 일터나눔이 있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함께하는 ‘국회일터나눔’에 그동안 66개 의원실에서 참여했다. 지난 7월15일 20대 국회의원실로는 처음 일터나눔에 참여한 박광온 의원을 만나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박광온의원은 보육, 저출산해결정책의 ‘덕후’

“처음 저출산 고령화에 관심을 갖게 된 건 1990년대 중반 일본 특파원으로 있을 때였어요, 일본사회의 고령화 속도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한국으로 돌아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때만 해도 먼 얘기로 간주되었지요. 그때가 바로 그 대책을 시작했어야했던 때인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2015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1.25명으로 일본의 1.40명보다 낮아 세계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15년 전부터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요즘은 식사자리에 가면 어른 6명에 아이 1명이라고. 자녀 돌인 집안의 모습인데 60대의 노인 부부와 30대의 두 자녀 부부, 손주 1명이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삼십년 후 그 한 아이가 6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역에 다니면 젊은 부부들이나 이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원장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출산, 보육문제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민간어린이집은 재정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 보육의 질이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아이를 맡길 부모들은 양질의 보육시설을 찾아 대기하고 있고, 보육비는 계속 오르고 주거비와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는 낳기 힘들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저출산 대책은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투자’로 접근해야

박광온 의원은 지역구는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한다는 수원 영통구이다. 자연스럽게 저출산, 보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난임치료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문제로 해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는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를 종합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득양극화에 따른 격차해소에 중점을 둔 국민연금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출산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사업에 국민연금을 투자해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예를 들면, 연기금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주택을 지을 때 1층 전체를 보육관련 원스탑 서비스공간으로 짓도록 하는 것, 직장내 보육시설을 만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보육시설을 지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운영이 어려운 민간시설 매입하여 공공립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박의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여성의 문제, 개별 가정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한 사회의 희망을 나타내는 종합지표로 바라보았다. 박의원실 일터식구들은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일터나눔 89호” 현판식 후 파이팅을 외치며 20대 일터나눔의 멋진 포문을 열어주었다. 저출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박광온 의원의 힘찬 국정활동도 기대해본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일터나눔〉은 국회의원과 의원실 직원들이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여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원사업에 쓰입니다. **W**

글 정유정(기획홍보팀)





짧은 여행 긴 호흡 파워업, 워밍업! 제주를 가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활동가를 위한 쉼 프로그램 <짧은 여행 긴 호흡>을 다녀온 장애여성네트워크의 활동가를 만나러 방화동 사무실을 찾았다. 정오가 지난 사무실, 뜨거운 햇살이 며칠째 계속됐지만 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활동가들의 얼굴은 활기찼다.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다양한 세대들의 여행

장애여성네트워크(백혜련 대표)와 활짝미래연대(김효진 대표) 활동가들이 함께 섬 여행을 다녀왔다. 기간은 3박4일, 여행지는 바다 건너 제주도다. “올해 11년이 되는 해다. 오로지 여행만을 위해 떠난 여행은 처음이다.” 백혜련 대표는 이번 여행을 너무 만족스러워했다. 식구가 된지 한 달 된 이나영 상담원과 이제 막 1년이 된 김지혜 상담원도 이번 여행이 남달랐다고 했다. 단 며칠이었지만 한 달 동안 익혔던 업무보다 더 압축적으로 많이 알고 친해졌다는 이나영 상담원과 본인의 아니게 화장이 지워진 생얼을 공개해야했던 김지혜 상담원은 여행얘기에 한층 목소리가 커진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단체가 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여행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여성재단이 보내온 <짧은 여행, 긴 호흡> 사업안내 팩스를 받자마자 신청서 작성 등 일사천리 진행됐고 선정된 후 여행계획 역시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기획한 하반기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다함께 일정을 맞춰 다녀온 보람이 있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활동가를 위해 동선은 더 세심하게 짜여졌다. “다행히 제주도는 휠체어가 이동하기에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관광지마다 대여해주는 곳도 있구요.” 순간순간 직원들의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몰랐던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 게 여행의 묘미였던 것 같네요.” 함께 여행한 <활짝미래연대>의 김효진 대표도 거들었다.

헌신하던 활동, 협력하는 운동으로

<장애여성네트워크>와 <활짝미래연대>는 각각 여성장애인과 노인이 대상이지만 문화활동과 상담활동 등 활동방식은 매우 유사하다. 여성장애분야에서도 발달장애와 소수자에 대한 활동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장애여성네트워크는 작년부터는 발달장애여성에 대한 연구를 비롯 발달장애인 직접 그린 컬러링북을 출간하여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조력가파견활동, 자립을 위한 지원활동, 여성발달장애연구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호받을 수 없는 처지가 많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여성이 산부인과를 갈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가족등 동행한 사람의 입장에서 진료와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에서 본인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발점은 분명했다.

<활짝미래연대>는 ‘노노케어’가 주요 사업이다. 50세 이상의 베이비부머세대가 7~80세 이상된 노인을 돌보는 시스템으로 자살, 치매, 우울증 예방 등이 주목적이다. 은퇴이후 그림치로나 자서전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이제까지 잘 살아왔구나 하는 자존감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경로당 등에서 전래놀이강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 두 단체가 협력을 통해 거두게 될 결과물의 토대가 이번 여행을 통해 좀 더 단단해졌달까.

“일하던 공간을 벗어나니까 일 얘기마저도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활동들이 뿔뿔이 찢어내는 제조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들을 대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일의 내용이 백팔십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충전도 되고 서로에게는 자극도 되고 계획된 하반기 사업을 진행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 대표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각자가 희생했던 것들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지금은 서로 협력하여 변화해나가는 조직의 모습이 필요할 때입니다. 각자의 재능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지요. 사람이라는 자원 역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충전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파워업, 워밍업 여행기! 우리 함께 떠난다고 전해라>라는 사업명답게 쉽고 힘을 재충전한 두 단체 활동가들이 즐겁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하반기 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 **W**

글 백진영(기획홍보팀)

100명의 장학생이 만들어낸 역사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10주년 기념행사>



지난 5월28일(토)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의 성장과 앞으로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가 성공회대학교 이천환기념관에서 열렸다. 2007년 한국사회 변혁과 혁신을 위해 여성활동가 리더양성에 첫 발을 내딛은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10주년 행사에는 <미래여성NGO장학사업>을 통해 성장한 100명

의 장학생들과 유한킴벌리 최규복 대표이사, 성공회대학교 양권석 前 총장, 한국여성재단 이해경 이사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대표가 참석하여 10년간의 성과를 축하하였다.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앞으로의 10년을 바라보며 여성활동가들에게 변함없는 지원과 지지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여성재단, 전국 6개 교육청과 생리대나눔 진행



한국여성재단은 7월 4일,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을 방문하여 생리대 기증 전달식을 진행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도내 17개 초중고교에 250박스, 총 10만 800개의 생리대를 지원하게 되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여학생 생리대' 문제에 논의를 진행해 온 한국여성재단은 생리대 약 153만 여개를 유한킴벌리로부터 후원받아 전국 6개 교육청(서울, 경기, 부산, 전북, 강원, 충남) 관할 초중고교와 서울시 소재 소녀돌봄약국 200 곳에 지원하게 되었다.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 <공간문화개선사업> 선정단체 발표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후원하는 2016 <공간문화개선사업>의 지원 단체(시설)가 선정되었다. 지난 3월 전국 공모를 통해 총 74개 단체(시설)가 지원하였고 그 중 대안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최종 9개 단체(시설)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단체(시설)는 열악한 노후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개선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사업까지 지원받게 된다. <공간문화개선사업>은 2009년~2015년까지 총 96개 단체(시설)의 공간개선을 지원했다.

2030 SDGs 공익재단 네트워크 포럼 <기후변화시대-불평등, 인권, 젠더>



지난 6월 24일 <기후변화시대-불평등, 인권, 젠더>를 주제로 2030 SDGs 공익재단 네트워크 2차 포럼이 열렸다. 조혜주 성공회대 교수는 기초발제에서 기후변화, 불평등, 인권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배제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주제발표에서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가 한국불평등 상황을 SDGs 관점에서 조망하였고 김양희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SDGs의 젠더이슈와 젠더 논의를 재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2030 SDGs 공익재단 포럼은 국내 5개 재단이 2030의제를 국내에 적용 및 확대하는데 공동으로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5회 진행할 예정이다.

2015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한국여성재단 연차보고서 발행



2015년 한국여성재단의 비전과 활동, 중요 이슈를 담은 연차보고서가 발행됐다. 한 눈에 보는 모금과 지원, 연구활동 등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들의 모임 등 한국여성재단의 한 해 활동을 모았다. 중대이슈분석을 통한 여성재단의 주요이슈를 분석한 내용도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북(e-book)과 파일로 공개하고 있다.

미래포럼 30%클럽 컨퍼런스<다양성이 경쟁력이다>



(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은)은 지난 5월 30일, CEO스코어와 공동 주최로 <30%클럽 컨퍼런스: 다양성이 경쟁력이다>를 개최하였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국내 500대 기업의 성별 다양성 지수를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장은지 맥킨지 앤 컴퍼니 이사는 한국 기업문화와 여성인재 활용과 관련한 문화 현황을 진단하였다. 유순신 유엔파트너즈 대표는 토론에서 한국경제의 미래는 성별다양성 확보와 여성의 적극적 참여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용과 돌봄 차원에서 여성과 남성의 '같음'을 추구하는 시민-노동자-돌봄인(Citizen-Worker-Carer)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100인 기부릴레이 2016 성과평가를 위한 이꿈이 간담회 개최



100인 기부릴레이캠페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6월 21일(목) 한국여성재단에서 '이꿈이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캠페인 이전에 진행한 1차 간담회에 이어 캠페인 후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재단과 이꿈이, 주자간의 관계형성에 대한 중요성과 지속적인 기부자 관리를 위한 오픈라인에서의 모임 등이 제안되었다.



수입 Income

항목	내용	금액(원)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538,022,577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만만클럽(폭력없는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공기부 싸이월드 기부 카드포인트 기부 등	211,496,055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75,622,090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18,000,000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1,30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캐쉬SOS상환기금 등	91,260,281
총수입		1,945,701,003



- 기업지정기부금 79%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10.9%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3.9%
- 특정명의기금 0.9%
- 운영후원금 0.6%
- 기타수입 4.7%

지출 Expense

구분	항목	내용	금액(원)
	모금사업비	모금행사, 기부자관리 등	21,644,014
고유 목적 사업비	배분사업비	1. 소외여성 empowerment 사업 · 여성가장 및 활동가,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CJ모금) ·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 다문화여성 창업지원사업 (J.P. Morgan) ·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 프로그램 'Harmony Project' (이씨엘디) · 봄빛장학기금 (봄빛기금)	731,284,929
		2. 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 여성NGO정착사업 (유한킴벌리)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캐쉬SOS상환 기금) ·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긴호흡 (교보생명)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 등	30,770,667
	연구사업비	연구조사비 등	1,675,200
운영비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26,521,588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4,529,810
총지출			1,026,426,208



- 모금사업비 2%
- 배분사업비 71.2%
- 홍보사업비 3%
- 연구사업비 0.2%
- 경상비 22.1%
- 시설비 1.4%

딸들이 웃는 사회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국여성재단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네이버 **해피빈**에서 한국여성재단을 검색하세요.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에서 **해피빈**을 눌러주세요.



생명보험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황제펭귄의 허들링 이야기를 아시나요?
매서운 남극의 추위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안쪽 펭귄과 바깥쪽 펭귄들이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합니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생명보험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